

기혼여성의 성역할 특성과 스트레스 지각이 스트레스 대처방식에 미치는 영향

박 애 선 · 이 영 희
(숙명여자대학교 교육학과)

본 연구는 기혼여성의 성역할 특성과 스트레스 지각을 조사하고 성역할 특성이 기혼여성의 스트레스 지각과 스트레스 대처방식에 어떤영향을 주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 목적을 위하여 두가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성역할 특성과 스트레스 대처방식은 전업주부, 취업주부, 사회교육참여주부 집단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가? 둘째, 스트레스 대처방식은 성역할 특성과 스트레스 지각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가? 조사대상은 전업 주부집단 105명, 취업 주부집단 110명, 사회교육참여 주부집단 115명으로 구분하여 303부가 자료분석에 사용되었다.

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성역할 특성은 세 집단에 따라서 의미있는 차이가 없으며 전체 조사 대상자의 성역할 특성은 미분화가 가장 많았다. 둘째, 스트레스 지각은 사회교육참여 주부집단에서 의미있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째, 스트레스 대처방식은 집단에 따라서 부분적으로 의미있는 차이를 보였는데 사회교육참여 주부집단이 조력추구, 문제해결, 소망적사고 대처방식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네째, 스트레스 대처방식은 성역할 특성에 따라서 부분적으로 의미있게 나타났는데 양성성집단이 문제해결과 문제회피 대처방식을, 미분화집단은 정서적완화 대처방식을 가장 많이 사용하였다. 다섯째, 스트레스를 많이 지각한 집단은 정서적완화와 조력추구 대처방식을 가장 많이 사용하였다. 여섯째, 스트레스 지각정도는 성역할 특성에 따라서 의미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인간행동을 이해하려는 노력은 여러학문 분야에서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한 개인의 적응여부의 문제는 우리의 중요한 관심분야이다. 특히 상담분야에 있어서 한 개인이 왜 적응하지 못하는지에 대한 걸림돌을 찾아서 함께 분석하고 그에 따른 대처방식을 찾아 잘 적응하게 하는 것은 의미있는 일이다. 현대사회의 급격한 변화중의 하나는 여성의 교육수준 향상과 사회참여 증가로 인하여 전통적인 여성의 즉성과 역할에 변화를

가져온 것이다. 그 중에서도 기혼여성의 취업율이 46.8%라는 것은 성역할의 변화를 가져오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현대사회에서의 여성은 가사와 양육이외에도 사회에서의 성취등이 요구되고 있는데 그것은 고정적인 역할을 하는 여성보다는 다양한 역할을 하는 양성적인 특성을 지닌 사람을 원한다고 볼 수 있다. 상담자의 가치, 고정관념 등은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내담자에게 영향을 주어서 상담의 효과에도 영향을 준다. 특히 우리는

남성적 가치 문화속에서 살고 있으므로 남성적 사고를 지닌 상담자가 여성적 가치와 사고를 지닌 내담자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여성이 스트레스를 받고 정신건강이 저해되면 여성자신 뿐만이 아니고 자녀, 남편 등 주변 사람들 까지도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현대사회에 맞는 성역할 특성으로 변화되어야 한다. 우리는 대부분 각 성에 맞는 적절한 특성과 성역할을 정해놓고 각 성에 일치하는 행동을 해야만 행복하고 건강하다고 믿어왔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급변하는 사회속에서 성역할의 변화가 요구되므로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적인 사고를 재고해 보아야 한다. 성역할 특성은 어떤 문화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 다르게 특징지워지는데 성역할에 대한 심리학적 연구는 남녀의 심리적인 차이를 증명하기 위해서 전반적인 성차를 중심으로 관찰, 비교했다. Whitley(1983)는 성역할 특성에 관한 연구를 일치모형, 양성성 모형, 남성성 모형으로 보는데 다음과 같다. 첫째, 전통적인 일치모형(traditional congruence model)은 가장 오래된 가정으로서 남성성(masculinity)이나 여성성(femininity) 중에서 한가지 성역할 특성만을 지향하게 되는데 개인의 성역할 특성이 개인의 성과 일치할 때 심리적 건강이 증진될 것이라고 가정한다(e.g., Abraham, 1911/1949; Erikson, 1963; Kagan, 1964; , 1969). 이러한 견해는 남성성과 여성성은 단일차원이 아니고 오히려 상보적 차원이라는 견해가 대두되면서 수정되었다(Bem, 1974, 1979; Constantinople, 1973; Spence & Helmreich, 1978). 둘째, 양성성 모형(androgyny model)은 한 개인이 남성성과 여성성의 두 특성을 동시에 지닐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모형은 남성성과 여성성이 배타적이라기 보다는 독립적이고 상보적이라고 가정하였다. 양성성(androgyny)은 그리이스어의 남성을 뜻하는 andro와 여성을 뜻하는 gyne의 합성어이며 Bem(1974)에 의하면 양성성은 사회의 성역할 고정관념을 이루는 내용 중에서 바람직한 여성적 특성과 바람직한 남성적 특성이 결합되어 공존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양성적인 사람은 각 성에 따라서 사회에서 요구

되는 적절한 행동을 해야한다는 틀을 벗어나 자유롭기때문에 어떤 상황에 처했을때 남성적인 행동과 여성적인 행동을 모두 사용하여 융통성을 발휘하므로 적응력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 셋째, 남성성 모형(masculinity model)은 Taylor와 Hall(1982)등이 양성성 모형에서 양성성이 심리적인 안녕감(well-being)을 예견해 줄 수 있는 '주요과'는 남성성일 것이라고 제안한다. 이 모형의 연구자들은 양성성 모형을 반대하는데 그 이유는 여성성이 개인의 적응면에서 거의 의미를 갖지 않는다는 것과 양성성의 구조를 가산적인 시각으로 보기 때문이다. 이들 남성성 모형의 연구자들은 양성적인 사람이 심리적으로 건강하다는 것은 양성성안에 남성성의 요소가 있기 때문인데 즉, 건강한 성인의 특성의 건강한 남성의 특성과 일치하므로 개인의 성에 관계없이 남성적인 성역할 특성이 개인의 심리적 건강에 기여하는 요소라고 주장한다(Locksley & Colton, 1979; Adams, 1989).

성역할 특성은 개인의 외적행동과 심리적 적응 및 사회적 적응 등에 중요한 영향을 주며(Bem, 1974; Spence, Helmreich & Stapp, 1975) 특히 개인의 심리적 상태와 심리적 근심(distress)등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친다(Carlson & Baxter, 1984; Cook, 1990). 본 연구에서는 양성성 모형의 입장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성역할 특성과 관련된 연구로서 자아존중감과 관련된 연구들(정진경, 1990; 박선숙, 1987; 조인선, 1986; 이재연, 1983)과 우울, 스트레스등의 정신건강과의 상관 연구들(Gove & Tudor, 1973; Cheron, Quinlan & Blatt, 1978; Elpern & Krause, 1983; Cook, 1990; Barnett & Baruch, 1987; McBride, 1990)이 있다. 이상의 연구들에서는 여성적 특성을 가진 사람은 자아존중감이 낮고, 우울하고 불안정하게 나타났다. 현대사회는 남성적 가치를 중시하므로 남성들은 자연스럽게 동화되어 살아가지만 여성들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하고 특히 여성성이 높은 사람들은 현대사회에서 요구하는 성역할 특성이 자신의 성역할 특성과 많이 상충되어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부적응

하게 될 확율이 높다. 즉, 기존의 여성적 특성을 가지고 전통적인 여성역할만을 하게 될 경우 스트레스를 받거나 좌절하게 되므로 여성의 정신건강이 저해 될 수 있다. Gove와 Tudor(1973)는 스트레스가 정신적 갈등을 가져올 수 있다고 하면서 주부역할이 전업주부의 갈등원인이 될 수 있는 이유를 제시하고 있다. 대부분의 여성들은 주부라는 한가지 역할만을 수행하므로 그 역할이 불만스러우면 다른 역할을 할 수 있는 대안이 없으므로 좌절을 느낀다. 또한 주부역할의 중요한 부분인 가사조동이 무보수성이라는 것이 전업주부의 자아개념을 낮게 하는 원인이 된다. 취업주부의 경우는 직장남성보다 직장여성에게 직장일보다 집안일이 우선이라는 이중기준이 기대되므로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 취업주부 스스로도 집안일과 직장일을 다 잘해야 한다는 슈퍼우먼 콤플렉스를 갖고 있는데 이럴 경우에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신체적, 정신적으로 더욱 힘들어지므로 갈등을 겪게 되며 정신건강을 해치게 된다. 이러한 갈등은 사회경제적지위에 관계없으며,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생활고와 도와주는 사람이 전혀 없기 때문에 남편과 아이들에 대한 책임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지 못하게 되는데 이런 어려움까지 합쳐지면 심리적 질환에 대한 위험도가 더욱 높아지게 된다. 기혼여성들의 스트레스와 관련해서 대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스트레스가 감소 혹은 완충되는 경우가 있다. 최근 스트레스 대처 방법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Lazarus(1974)는 대처를 개인이 직면한 요구가 개인의 행복과 삶, 그 자체에 밀접히 연관되어 있을 때, 이 요구가 자신이 갖고 있는 적응능력을 초과하거나 부담이 된다고 평가할 때 그 개인이 행하는 문제해결의 노력으로 보고 있으며, Pearlin과 Schooler(1978)는 정서적 고민을 통제하고 피하고 막아내려는 상황적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러면 현대여성이 스트레스에 직면해서 좌절하지 않고 적응하기 위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Bem은 양성적인 사람은 심리적으로 건강한 특성으로 성정형화(sex stereotyping) 되지 않기 때문에 다양한 행동을 수행

해 낼 수 있으므로 상황의 요구에 따라 적절하게 대처하여 잘 적응할 수 있다고 보았다.

Broverman과 그의 동료들(1970)은 정신건강의 개념으로 '적용'을 받아들여지게 될 경우, 여성이 남성과 성인의 긍정적인 특성을 취한다면 여성으로서는 갈등에 처하게 되어 자신의 여성적 특성에 의구심을 갖게 되고, 반대로 여성적 행동을 나타내면 스스로 열등하게 생각하므로 정신건강과 성숙의 정의에 대한 대안으로 적용보다는 자아의 가능성을 성취하고자 하는 선천적 욕구에서 의미를 찾으려고 했다. 그러므로 남성이거나 여성이 기존의 전통적인 성역할에 의해 적용하기 보다는 자신의 잠재가능성을 최고도로 실현하는 것이 정신건강에 훨씬 도움이 된다고 주장한다. Rogers(1951)의 자아이론은 성역할 고정관념이 정신건강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 우리가 정확한 지각을 하고 나서 사회적 기대감과 자신의 가치를 통합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인데, 성역할 고정관념 자체가 각 성의 적절한 행동에 대한 사회적 기대감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한 개인의 동기나 가치관 등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갈등의 요인이 된다.

결국 우리가 갖고 있는 성역할 고정관념이 우리의 정신건강을 저해하는 원인이 되는데 이러한 상황에 적응하기 위해서 의식 향상을 위한 집단상담 등의 페미니스트적인 접근이 남성과 여성에게 필요하다고 본다. 정소영(1985)의 연구에서 보면 의식향상 집단상담은 양성성을 증가시켜서 정신건강을 촉진시키고 성역할 고정관념에서 벗어나는데 효과적이라고 한다.

연구방법

1. 대상 및 절차

본 조사는 1991년 5월-8월에 걸쳐 서울 및 지방에 거주하는 주부를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330명(전업주부 105명, 취업주부 110명, 사회교육참여주부 115명)을 설문조사에 사용되었다. 조사대상 주부의 연령은 30-40세가 67.9%, 41-50세가 32.1%이며, 조사대상자의 학력은 전부 대졸이상

으로 나타났다. 종교는 기독교인 40.7%,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다. 22.3%, 불교 19.2%, 천주교 2% 순이다.

2. 도구

본 연구의 조사도구는 **성역할 특성 척도, 일상적 스트레스 지각 척도, 스트레스 대처방식 척도** 등이다.

1) 성역할 특성 척도

이 척도는 정진경(1990)이 개발한 한국형 성역할 검사(Korean Sex Role Inventory : KSRI)를 사용하였다. 이 검사는 남성성, 여성성, 긍정성을 나타내는 60개의 성격특성 문항들로 이루어져 있고 각각의 문항들이 얼마나 자신을 잘 표현하고 있는지를 5점 척도에 답을 하게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1)'에서 '항상 그렇다(5점)'이다. 각 응답자에게 세가지 점수를 내게 되는데 남성성 점수는 20개의 남성성 문항에 대한 응답의 평균이고, 여성성 점수는 20개의 여성성 문항에 대한 응답의 평균이다. 이 두 점수는 논리적으로 상호독립적이며, 계산과정에서도 독립적으로 산출된다. 긍정적 점수는 10개의 부정성 특성 문항에 대한 응답의 점수를 반대로 하여 예를 들어 1은 5로, 2는 4점수가 높을수록 자신을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긍정적인 특성을 높게 가지고 있는 것으로 표현하는 경향이 높다는 것을 나타낸다. 중앙치 분리법(Median Split Procedure)을 사용하여 4가지 성역할 특성으로 분류하는데 전체 응답자 집단의 남성성, 여성성점수들의 중앙치를 준거로 하여 각 개인의 남성성, 여성성 점수가 이보다 높거나 낮은가를 가려서 응답자들을 네 집단으로 분류하는 방법이다. 남성성과 여성성 점수가 중앙치보다 높으면 양성성 집단으로, 남성성 점수는 중앙치보다 높고 여성성 점수가 중앙치보다 낮으면 남성성 집단으로, 남성성 점수는 중앙치보다 낮고 여성성 점수가 중앙치보다 높으면 여성성 집단으로, 남성성 점수와 여성성 점수가 중앙치보다 낮으면 미분화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2) 일상적 스트레스 지각 척도

이 척도는 김정희(미간행)가 번안한 DeLongis의 일상적 스트레스 지각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지각된 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하여 검사 당일을 포함하여 지난 1년 동안 일상생활에서 스트레스로 경험한 사건이 현재생활에서 얼마나 문제가 되는가를 평정하도록 한 것이다. 응답자들은 각 항목에 대하여 '전혀 아니다(0)'에서 '아주 많이 그렇다(3)'에 답하게 되어있다. 신뢰도는 $\alpha=.89$ 이고 스트레스의 유형을 알아보기 위하여 요인분석(varimax)을 한 결과 가정일, 직장/사회활동, 사회환경, 여가선용, 경제적 문제등 5개 요인으로 추출되었다.

3) 스트레스 대처방식 척도

이 척도는 Folkman과 Lazarus(1985)가 개발한 68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진 스트레스 대처방식 척도(The ways of coping checklist)를 우리 실정에 맞는 진술문으로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응답자들은 각 항목에 대하여 '사용하지 않은(0)'에서 '아주 많이 사용(3)'에 응답하게 되어 있다. 신뢰도는 $\alpha=.92$ 이고 이 척도의 요인분석(oblique 회전)결과 문제해결, 정서적 완화, 조력추구, 문제회피, 소망적 사고등의 5개 요인이 추출되었다. (부록참조)

결과해석

소속집단에 따라 성역할 특성은 의미있는 통계적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은데 이것은 조사대상이 중산층 이상으로 교육수준이 비슷하기 때문일 것이다. 집단의 전체 조사대상자의 성역할 특성 분포를 보면 미분화 유형이 29.9%로 가장 많으며 그 다음이 양성성 26.5%, 남성성 23.5%, 여성성 20.1% 순으로 나타났다. 전업주부에서는 양성성이 다른 특성에 비해 19.4%로 가장 낮고, 취업주부나 사회교육주부집단의 남성성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것은 남성성이 전업주부의 역할로서 적합하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이반대로 취업주부와

〈표 1〉 집단에 따른 성역할 특성의 차이

구 분	전업주부	취업주부	사회교육참여주부	계
양성성	24(34.3)	24(34.3)	22(31.4)	70(26.5)
남성성	12(19.4)	25(40.3)	25(40.3)	62(23.5)
여성성	24(45.3)	16(30.2)	13(24.5)	53(20.1)
미분화	23(29.1)	32(40.5)	24(30.4)	79(29.9)
계	83(31.4)	97(36.7)	84(31.8)	264(100.0)

$X^2=10.0315$ $df=6$ N.S. ()은 %

〈표 2〉 집단에 따른 스트레스 지각의 차이

구 분	전업주부	취업주부	사회교육참여주부	계
상	37(24.7)	53(35.3)	60(40.0)	153(50.5)
하	62(40.5)	50(32.7)	41(26.8)	150(49.5)
계	99(32.7)	103(34.0)	101(34.3)	303(100.0)

$X^2=9.946$ $df=2$ $p<.01$ ()은 %

사회교육참여 주부에서는 여성성이 현저히 낮게 나타났는데 사회에서의 역할에는 여성성이 요구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전업주부, 취업주부, 사회교육참여 주부집단의 스트레스 점수상의 차이를 보면 〈표2〉와 같다. 스트레스 지각점수는 7-113점 사이에 분포하고 있으며 이를 중앙치 45를 중심으로 상 집단은 45-113점으로, 하 집단은 7-44점으로 구분하였다. 이를 전업, 취업, 사회교육참여 집단별로 차이를 알아본 결과 사회교육참여집단이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으며, 그 다음이 취업, 전업주부 순으로 의미있는 통계적 차이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사회교육참여집단이 다른 집단에 비해서 뚜렷하게 소속된 자신의 일이 취업주부에 비하여 없으며 그렇다고 전업주부처럼 가정일에 전념하고 있지 못하는데서 오는 정체감 상실등의 이유로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받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조사대상 주부들이 가장 스트레스로 느끼는 문제를 알아본 결과 세 집단 모두 환경문제를 가장 큰 스트레스 요인으로 지적하고 있다. 이것은 과거 주부들이 남편, 자녀등 주로 가사일에 관련된 부분을 스트레스로 지적했던 것에 비해서 날로 심각해지는 공해, 교통, 환경오염,등 자신만의 문제로 국한되지 않는 사회환경에 많은 관심을 두

〈표 3〉 집단에 따른 문제해결 대처방식의 차이

구 분	N	M	SD	F
전 업	99	1.47	0.45	7.044***
취 업	103	1.57	0.41	
사회교육	101	1.70	0.42	
전 체	303	1.58	0.44	

*** $p<.001$

〈표 4〉 집단에 따른 정서적 완화 대처방식의 차이

구 분	N	M	SD	F
전 업	99	0.85	0.46	0.991
취 업	103	0.78	0.44	
사회교육	101	0.87	0.45	
전 체	303	0.83	0.45	

〈표 5〉 집단에 따른 조력추구 대처방식의 차이

구 분	N	M	SD	F
전 업	99	1.33	0.57	8.483***
취 업	103	1.46	0.49	
사회교육	101	1.63	0.53	
전 체	303	1.47	0.54	

*** $p<.001$

고 있음을 알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다음 스트레스 요인으로 나타난 것은 자녀양육 문제이며, 그 밖에 가사, 직장일, 건강 등으로 나타났다.

〈표 6〉 집단에 따른 문제회피 대처방식의 차이

구 분	N	M	SD	F
전 업	99	1.53	0.53	0.823
취 업	103	1.46	0.53	
사회교육	101	1.55	0.55	
전 체	303	1.51	0.53	

〈표 7〉 집단에 따른 소망적 사고 대처방식의 차이

구 분	N	M	SD	F
전 업	99	1.42	0.59	4.855**
취 업	103	1.36	0.49	
사회교육	101	1.61	0.70	
전 체	303	1.46	0.61	

** p < .01

〈표3〉에서 보면 조사대상 집단간에 문제해결 대처방식의 차이는 의미있게 나타나고 있다. 스트레스 상황에서 문제해결적 대처방식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집단은 사회교육참여집단이며, 그 다음이 취업주부, 전업주부 순이다. 따라서 스트레스 상황에서 사회교육참여 집단이 다른 집단에 비해 문제해결 대처방식을 많이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5〉를 보면 집단간에 조력추구 대처방식의 차이를 보면 사회교육참여 집단이 다른 사람의 조언이나, 도움을 가장 많이 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이 취업주부, 전업주부 순으로 나타났다. 〈표7〉에서 보면 집단에 따라서 소망적 사고 대처방식은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는데 사회교육참여집단이 스트레스 상황에서 이 문제에 대한 어떤 기대나 소망을 하는 스트레스 대처방식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은 전업주부, 취업주부 순이다. 그 밖에 정서적완화, 문제회피 대처방식은 세집단간에 의미있는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다.

〈표 8〉 성역할 집단에 따른 문제해결 대처방식의 차이

구 분	N	M	SD	F
양성성	70	1.74	0.43	4.747**
남성성	62	1.59	0.45	
여성성	53	1.53	0.40	
미분화 계	79	1.49	0.40	
계	264	1.59	0.43	

** p < .01

〈표 9〉 성역할 집단에 따른 정서적 완화 대처방식의 차이

구 분	N	M	SD	F
양성성	70	0.79	0.45	6.198***
남성성	62	0.82	0.44	
여성성	53	0.64	0.31	
미분화 계	79	0.97	0.48	
계	264	0.82	0.45	

*** p < .001

〈표 10〉 성역할 집단에 따른 조력추구 대처방식의 차이

구 분	N	M	SD	F
양성성	70	1.50	0.56	1.019
남성성	62	1.57	0.56	
여성성	53	1.40	0.58	
미분화 계	79	1.45	0.46	
계	264	1.48	0.54	

〈표 11〉 성역할 집단에 따른 문제회피 대처방식의 차이

구 분	N	M	SD	F
양성성	70	1.65	0.53	3.025*
남성성	62	1.39	0.60	
여성성	53	1.43	0.54	
미분화 계	79	1.50	0.47	
계	264	1.50	0.54	

* p < .05

〈표 12〉 성역할 집단에 따른 소망적 사고 대처방식의 차이

구 분	N	M	SD	F
양성성	70	1.48	0.62	
남성성	62	1.30	0.63	
여성성	53	1.51	0.54	1.686
미분화	79	1.48	0.56	
계	264	1.44	0.56	

〈표8〉와 〈표11〉에서 보면 성역할 유형 집단별로 스트레스에 대한 문제해결 대처방식과 문제회피 대처방식에서 의미있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해결 대처방식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집단은 양성성(M=1.74)이며, 그 다음이 남성성(M=1.59) - 여성성(M=1.53) - 미분화(M=1.49) 순이다. 문제회피 대처방식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양성성 특성을 지닌 집단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양성적인 사람은 다양한 행동을 할 수 있다는 특성 때문에 상황에 적절하게 대처하기 때문이다. 〈표9〉에서 보면 성역할 유형집단별로 정서적 완화 대처방식에서 의미있는 차이를 나타내고, 이 대처방식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집단은 미분화이고 그 다음이 남성성(M=0.82) - (M=0.79) - 여성성(M=0.67) 순이다. 이것으로 보아 남성성 특성과 여성성특성 모두를 나타내지 않는 여성들은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노력이 외부로 투여되는 적극적인 대처방식을 사용하기 보다는 대처하는 노력이 자신의 감정이나 사고등 내부로 투여되는 소극적인 대처방식을 사용한다고 볼 수 있다.

〈표 13〉 스트레스 지각에 따른 문제해결 대처방식의 차이

구 분	N	M	SD	F
상	140	1.63	0.43	
하	163	1.55	0.44	2.408
계	303	1.58	0.44	

〈표 14〉 스트레스 지각에 따른 정서적 완화 대처방식의 차이

구 분	N	M	SD	F
상	140	0.94	0.46	
하	163	0.75	0.43	13.158***
계	303	0.84	0.45	

*** p<.001

〈표 15〉 스트레스 지각에 따른 조력추구 대처방식의 차이

구 분	N	M	SD	F
상	140	1.62	0.52	
하	163	1.35	0.54	18.393***
계	303	1.47	0.54	

*** p<.001

〈표 16〉 스트레스 지각에 따른 문제회피 대처방식의 차이

구 분	N	M	SD	F
상	140	1.55	0.55	
하	163	1.48	0.52	1.487
계	303	1.51	0.53	

〈표 17〉 스트레스 지각에 따른 소망적 사고 대처방식의 차이

구 분	N	M	SD	F
상	140	1.52	0.63	
하	163	1.41	0.59	2.395
계	303	1.46	0.61	

〈표 18〉 성역할 집단에 따른 스트레스 지각의 차이

구 분	N	M	SD	F
양성성	70	45.61	20.87	
남성성	62	47.65	20.32	
여성성	53	42.72	17.27	1.220
미분화	79	48.99	18.78	
계	264	46.52	19.46	

〈표14〉 - 〈표17〉을 보면 스트레스 지각 집단별로 정서적 완화 대처방식과 조력추구 대처방식에서의 의미있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것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집단이 적게 받는 집단보다 소극적 대처방식인 정서적 완화 대처방식과 다른 사람으로부터 조언을 구하는 적극적 대처방식을 더 많이 사용하고 있다고 복 수 있다. 스트레스 지각집단별로 문제해결, 문제회피, 소망적 사고 대처방식은 의미있는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다. 〈표18〉에서 성역할 집단에 따라 스트레스 지각은 의미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는데 이것은 조사대상 모두가 많은 스트레스를 갖고 있기 때문에 집단간에 차이를 보이지 않은 것이다.

논의

본 연구는 기혼여성의 역할면에서 전업주부, 취업주부, 사회교육참여주부의 세 집단으로 나누어 성역할 특성, 스트레스 지각정도, 스트레스 대처방식을 알아보고 기혼여성의 성역할 특성과 스트레스 지각이 스트레스 대처방식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알아보았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혼여성의 성역할 특성은 미분화집단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양성성-남성성-여성성 집단의 순으로 나타났다. 집단별 성역할 특성은 의미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는데, 이것은 조사대상의 사회경제적지위 등이 비슷하기 때문일 것이다. 세 집단 모두 미분화 특성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아직도 우리사회가 전업주부나 직장을 갖고 있는 취업주부이거나 여성들은 자기주장을 표현하고 살기보다는 남성특성과 여성특성을 모두를 나타내지 않고 자신들의 감정등을 억압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세 집단에 따른 스트레스 지각정도를 볼 때 사회교육참여 집단이 가장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며, 그 다음이 취업주부, 전업주부의 순으로 의미있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사회교육참여 집단은 성취동기는 높는데 비하여 뚜렷이 소속된 곳도 없고 전업주부와 같이 가정일에만 흥미를 갖고 전념하지 못하는데서 오는 열등감, 정체감의

상실과 더불어 무력감을 느끼기 때문일 것이다. 취업주부가 사회교육참여주부보다 이중부담을 갖고 있으나 직장에 나와 있는 시간 만큼은 집안 일을 잊어버릴 수 있고 남편에 대한 불만이나 갈등들을 상쇄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취업주부는 이중부담의 무거운 짐에서 당하고 있는 고통을 직업에서의 만족, 사회참여에서 얻는 만족과 독립성으로 해소시킬 수 있기 때문에 비취업주부보다 더 만족하고 생활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여 스트레스를 적게 지각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남유리(1988), Ferree(1976), Ivan Nye(1976), Goode(1964), 이동원(1976)등의 선행연구와 일치한다. 또한 취업주부들이 자녀양육과 사회화, 그리고 가정주부로서의 역할수행의 시간부족으로 갈등을 느낀다고 하는 Orden & Bradburn(1969)등의 연구 결과와 상반된다. 전업주부가 스트레스를 가장 적게 지각한 것은 가사일 등을 자신의 역할로 받아들임으로서 그 자체를 스트레스로 지각하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전업주부가 처음 당분간은 안락하게 사는것 같지만 나이가 들수록 사회에서 쓸모없고, 소모되었다고 느끼며 고립됨으로서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이동원(1976)의 연구결과와 상반된다.

셋째, 스트레스 대처방식은 세 집단에 따라서 부분적으로 의미있게 나타났다. 세 집단 중에서 사회교육참여주부 집단이 문제해결 대처방식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다음이 취업주부-전업주부의 순이다. 스트레스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경향은 사회교육을 받고 있는 주부집단이 가장 높게 나타남으로서 이 집단이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전업주부집단이 문제해결 대처방식을 가장 적게 사용하고 있는 것은 다른 집단이 배해 이 집단이 스트레스 상황에서 소극적인 태도를 나타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조력추구 대처방식도 사회교육집단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이 취업주부-전업주부 순이다. 따라서 사회교육참여 집단이 스트레스 상황에서 다른사람의 도움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대처방식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스트레스 상황

에서 소망적 사고방식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대처방식 역시 사회교육참여 집단이 가장 많이 사용하며, 그 다음이 전업주부, 취업주부 순이다. 앞에서 조사된 것처럼 사회교육참여집단이 세 집단중에서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며, 세 집단 중에서 문제해결, 조력추구, 소망적 사고 대처방식등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집단일수록 다양한 대처방식을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전업주부들은 다른 집단에 비해 소극적인 소망적 사고 대처방식을 더 많이 사용한다고 나타났는데 이것은 전업주부들이 적극적으로 대처할 자원을 적게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평가했을때 더욱 신비적 행동이 증가한다는 김애순(1986)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네째, 스트레스 대처방식은 성역할 특성과 부분적으로 의미있게 관련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문제해결 대처방식은 양성성집단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결과들은 양성성의 모형을 지지한다고 볼 수 있는데 즉, 양성적인 사람은 모든일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려 하며 문제의 성격에 따라서 문제를 회피하는 융통적인 행동을 취한다고 볼 수 있다.

다섯째, 스트레스의 지각정도에 따라서 대처방식은 의미있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집단이 적게 받는 집단이 적게 받는 집단보다 정서적 완화대처방식, 조력추구 대처방식을 더 많이 사용하고 있다.

여섯째, 성역할 유형집단에 따라서 스트레스 지각은 차이가 없는데, 이것은 조사대상인 기혼여성이 같은 정도의 스트레스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일곱째, 주부들의 스트레스를 유형별로 보면, 전체 조사대상자들이 가장 스트레스로 느끼는 것은 환경문제이고 그 다음이 가사, 자녀양육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와는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장병옥(1986)의 연구에서는 도시주부의 스트레스가 가사노동-건강-재정-가정문제 순으로 나타났고, 남유리(1988)의 연구에서는 상실요인이나 경제관련 요인들의 개인적

인 문제에 스트레스를 많이 느끼는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조사대상 모두가 환경문제를 가장 큰 스트레스 요인으로 나타냄으로서 현대사회의 심각한 문제인 공해, 소음, 교통난, 자연환경 파괴 등을 자신들의 문제로 인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의 결과들을 통하여 몇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전체 조사대상자 중에서 미분화특성이 가장 많았는데 이것은 아직도 한국사회가 가부장적인 문화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한국의 여성상은 여성은 있는듯이 없는듯이 있어야 하고 자기주장을 내세워서도 안됨으로서 여성성특성과 남성성특성 둘다를 나타내지 않는 미분화특성을 나타내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조사대상은 집단간에 차이를 보이지 않음으로서 기혼여성 모두가 스트레스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미분화 특성이 가장 많이 나타났다. 즉, 적응력이 가장 낮다는 미분화 집단이 스트레스를 많이 지각함으로써 양성성모형을 지지하고 있다고 설명할 수 있다. 이것은 한국남성의 미분화 집단은 다른 세 집단과 비슷한 빈도를 나타내고 스트레스를 가장 적게 지각한다고 하는 윤진등(1989)의 연구결과와 상반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우리사회가 여성성특성과 남성성특성 모두를 나타내는 양성적인 특성을 요구하기 보다는 두가지 특성 모두를 나타내지 않는 여성을 바람직하게 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여성들은 자신들의 독자적인 영역을 갖지 못하고 남편이나 자녀에 의한 삶을 영위함으로써 스트레스를 받게 되며 불안한 자아정체감을 갖게 된다. 미래의 사회는 상황에 따라서 여성적 특성이나 남성적특성으로 융통성있게 나타낼 수 있는 양성적인 사람을 요구하므로 남성이나 여성이나 의식향상집단훈련 등을 통하여 양성성을 고양하여 고정관념에서 벗어난 적응적인 삶을 지향하여야겠다. 본 연구에서는 조사대상을 기혼여성으로만 제한하였는데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기혼과 미혼의 성인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역할 특성, 스트레스지각, 스트레스 대처방식 등이 연구되어야겠다. 또한 남성과 여성을 대상으로 한 비교연구도 인간성해방이란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본

다.

참고문헌

- 김명자(1988). 중년기 위기감 및 그 관련변인에 관한 연구. 이대박사학위논문.
- 김애순(1986). 성인기의 연령증가와 상황평가에 따른 대처행동의 차이. 연대석사학위논문.
- 김태련. 이선자. 조혜자 역(1989). 성의 심리학. 서울 : 이대출판부.
- 윤진, 최정훈, 김영미(1989). 성역할 고정관념과 남성의 스트레스와의 관계(I). 한국심리학회지, V.4, N.2.
- 장병욱(1985). 도시주부의 스트레스 인지수준 및 적응 방법에 관한 연구. 숙대석사학위논문.
- 정소영(1985). 의식상향훈련이 여성의 양성공존성에 미친 효과에 관한 연구. 연대석사학위논문.
- 정진경(1990). 한국 성역할 검사(K S R I). 한국심리학회지, 5, 82-92.
- 황순자 역(1987). 정신건강과 성역할. 서울 : 형설출판사.
- Barnett, R.C., Biener, L., Baruch, G.K.(1987). Gender & Stress. New York : The Free Press.
- Cohen, F., & Lazarus, R.S.(1983). Coping and adaptation in health and illness. In D.Mechanic (Ed.), Handbook of health, health care, and the health professions. 608-635. New York : basic Books Inc.
- Cook, E.P.(1985). Psychological Androgyny. New York : Pergamon.
- .(1990). Gender and Psychological Distress. Journal of Counseling & development, 68, 371-375.
- Deaux, K.(1976). The Behavior of Women and Men. California : brooks / Cole Publishing Company.
- DiBenedetto, B., & Tittle, C.D.(1990). Gender and Adult Role : role commitment of women and men in a job-family trade-off context.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7, 41-48.
- Good, G.E., & Mintz, L.B.(1990). Gender Role Conflict and Dpression in College Men : evidence for compounded rick. Journal of Counseling & Development, 69, 17-21.
- Kaplan, A.G., & Bean, J.P.(1976). Beyond sex-role stereotypes readings toward a psychology of androgyny. Boston : Little, Brown and Company Inc.
- Kaplan, A.G., & Sedney, M.A.(1980). Psychology and sex roles androgynous perspective. Boston : Little, Brown and Company Inc.
- McBride, A.B.(1990). Mental health effects of womens multiple roles. American Psychologist, 45, 381-384.
- Tait, L.M.(1989). Coping patterns of aging women : a developmental perspecyive. The Jaworth press, Inc.
- Verbrugge, L.M.(1983). Multiple Roles and Physical Hwalth fo Women and Men.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24, 16-30.
- Whitley, B.E.(1983). Sex role orientation and self-esteem : A critical metaanalytic, 44, 765-778.
- Worell, J.(1980). New directions in counseling women. The Personnel and Guidance Journal, March, 477-484.
- Tinsley, H.E.A., & Tinsley, D.J. (1989). Reinforcers of the occupation of homemaker life cycl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6, 189-195.

Abstract

Influence of the Sex Role Characteristics and Stress Perception of Married Women On the Coping Style for Stress

Park Ae Sun and Lee Young Hee

Department of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Sook Myung Women's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married women's sex role characteristics and stress perception and to study influence of the sex role characteristics on stress perception and the coping styles for stress. For this purpose, two research questions were established. First, is there any difference in sex role characteristics and the coping styles for stress among three groups (housewives, working women and women participating in social educational institutes)? Second, do the sex role characteristics and stress perception make any difference in coping styles for stress? The subjects consisted of housewives(105), working women(110), and women participating in social educational institutes(115).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X², ANOVA and Factor analysis. The finding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three groups didn't show any significant difference in social educational institutes(PSEI) showed highest degree of stress perception. Third, in the coping styles for stress partial significant difference was revealed among three groups. Especially the group participating in social educational institutes used mainly help by the family members or others, solving problems for themselves and wishing for more good circumstances as their coping styles. The coping styles for stress were partially related to the sex role characteristics. The main coping styles 'the androgynous group used' were solving and avoiding problems for themselves and 'the differentially functioning group' used mainly the coping styles of easing strained emotion. The group which showed the highest degree of stress perception used mainly the coping styles of easing strained emotion and helping by family members or others. Difference in degree of stress perception was not significant among the types of sex role characteristics.

〈부 록〉

스트레스 대처방식 척도의 요인분석 결과

요인 1 : 문제해결	e=10.29	요인부하량
그 문제에서 무엇인가 바람직한 것을 얻으려고 노력한다.		(.449)
자신은 없지만 무엇인가 해 보려고 노력한다.		(.377)
인간적으로 변화 또는 성숙되고자 노력한다.		(.456)
활동계획을 세우고 그것에 따른다.		(.525)
그 문제의 끝에 가서는 좋은 경험을 갖게 된다고 생각한다.		(.374)
너무 서두르거나 예감에 따르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455)
새로운 신념을 얻는다.		(.681)
금지물 가지고 곳곳이 견디어 나간다.		(.618)
인생에 있어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재발견한다.		(.654)
그 문제가 해결되도록 무엇인가를 변화시킨다.		(.541)
내 입장을 지키면서 원하는 것을 위해 싸운다.		(.436)
과거의 비슷한 경험에 의존한다.		(.353)
목표를 명확히 알기 때문에 그 문제가 잘 풀리도록 노력한다.		(.663)
문제해결을 위해 몇가지 대책을 세운다.		(.466)
그 문제로 인한 내 감정 때문에 다른 일에 방해받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460)
요인 2 : 정서적 완화	e=3.75	요인부하량
아무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한다.		(.488)
내 감정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으려고 한다.		(.403)
음식을 먹거나 음주, 흡연, 약물복용 등을 통해 기분전환을 한다.		(.496)
획기적인 기회를 갖거나 매우 위험부담이 큰 일을 한다.		(.631)
그 문제를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한다.		(.373)
다른 사람에게 분풀이 한다.		(.541)
그런 문제가 일어났다는 것을 믿지 않는다.		(.551)
조깅이나 다른 운동을 한다.		(.458)
위에 있는 것과 다른 무엇인가를 시도해본다.		(.394)
요인 3 : 조력추구	e=2.21	요인부하량
그 문제에 대해 누군가와 의논한다.		(.682)
그 문제를 일으킨 사람에게 화를 낸다.		(.426)
다른 사람들의 동정과 이해를 받아들인다.		(.547)
그 문제를 구체화시킬 수 있는 사람과 이야기 한다.		(.469)
존경하는 친척이나 친구에게 조언을 구한다.		(.650)
내가 어떻게 느끼고 있는가를 누구에게 말한다.		(.536)
요인 4 : 문제회피	e=1.66	요인부하량
그 문제를 잊기 위하여 다른 일이나 활동을 한다.		(.448)
시간이 지나면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475)
그 문제의 좋은 면만을 보려고 한다.		(.436)
모든 것을 잊어버리려고 노력한다.		(.585)
요인 5 : 소망적 사고	e=1.36	요인부하량
어쩔 수 없기 때문에 그 문제를 그대로 받아들인다.		(.361)
그 문제나 내 감정이 바뀌어지기를 바란다.		(.405)
내가 처한 지금의 상황보다 더 좋은 경우를 상상하거나 공상한다.		(.514)
그 문제가 없어지거나 끝나기를 바란다.		(.799)
그 문제가 어떻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공상이나 소망을 한다.		(.561)